

양현종 '끌고' 정해영 '밀고' 80승 선착

KIA, 키움전 스윙 4연승 신바람...우승 확률 94.7%

양현종, 7이닝 '10K'·정해영 '30S' 역대 17번째 120S
"김도영 보자" 23번째 만원...한 시즌 최다매진 신기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즌 80승을 선착하며, 정규리그 우승까지 6걸음을 남겨

크라테스와 나성범, 김선빈이 1타점을 기록했고, 김도영이 2타점을 때려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특히, 김도영은 3회와 8회 1타점씩 보태며 2000년 박재홍(현대 유니콘스)과 2015년 에릭 테임즈(NC 다이노스)에 이어 KBO 리그 역대 3번째로 '3할-30 홈런-100타점-100득점-30도루' 대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KIA 선발투수 양현종은 승수를 챙기지 못했지만 7이닝 2피안타 1볼넷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KBO 통산 최다 탈삼진 타이틀을 보유 중인 양현종은 이 부문 기록을 2천70개로 늘리며, '전설' 송진우(2천48개)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9회 등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킨 정해영은 2021년(34세이브), 2022년(32세이브)에 이어 2년 만에 개인통산 3번째 3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이날 세이브를 추가한 정해영은 K

BO 역대 17번째로 통산 120세이브를 달성했다.

1회초 한 점을 내준 KIA는 3회 상대 3루수의 연속 실책으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김도영의 내야 땅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팀은 7회까지 1-1,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KIA는 8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1실점했지만, 곧바로 8회말 동점과 역전으로 이어지는 박이닝을 만들었다.

최원준의 안타, 박찬호의 희생번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소크라테스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스코어 2-2 균형을 맞췄다.

이어 김도영이 1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한 데 이어, 나성범의 희생플라이와 김선빈의 1타점 2루타로 5-2 승부에 쾌거를 박았다.

승기를 잡은 KIA는 '수호신' 정해영이 9회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4연승과 함께 키움전 스윙시리즈를 완성했다.

한편, KIA는 이날 열린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2만500석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하며 시즌 23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키움과의 홈 경기도 만원 관중이 몰리면서 종전 2009년의 시즌 최다 매진 기록(21회)을 넘어선 바 있다.

/주홍철 기자



정해영



양현종



8일 열린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유현조가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유현조 '루키 메이저'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신인 유현조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유현조는 8일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연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타를 기록한 유현조는 11언더파 27타의 성유진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억1천600만원을 받았다.

KLPGA 투어에서 신인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이 대회 임희정 이후 유현조가 5년 만이다.

이번 시즌 신인 우승은 유현조가 처음이고, 역대 신인 선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유현조가 10번째다.

또 신인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투어 첫 승을 따낸 것은 2013년 한국여자 오픈 전인지 이후 올해 유현조가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41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메달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산, 김수린, 이혜린, 곽예지)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시청 김수린 '金'·광주은행 안산 '銀'

회장기대학실업양궁, 남구청 이승윤 銅·광주은행 단체전 銅

김수린(광주시청)이 올림픽제패 기념 제41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여자양궁 1인자에 올랐다.

김수린은 지난 7일 강원도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결승에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을 세트스코어 6대4로 꺾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거리별 경기 70m에서 금메달, 6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수린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금메달과 은메달로 기량을 끌어 올

린 김수린과 안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선발전 예열을 마쳤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이승윤(남구청)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승윤은 이진용(국군체육부대), 이동영(예천군청), 장지호(예천군청), 정태영(고양엑스텐보이즈)을 연파하며 4강까지 순항했으나 '복병' 서민기(현대제철)에게 3대7로 말뚝이 잡혀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남자대학부에 출전한 진효성(조선

대)은 결승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진효성은 송태건(안동대), 김동훈(안동대), 김민재(계명대), 장준하(계명대), 김동현(경희대)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문군호(한체대)에게 5대6으로 패해 금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최미선, 김이안, 안산으로 팀을 꾸린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현대모비스에 3대5로 패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



8일 열린 한국과 독일의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전반전 결승골을 터뜨린 박수정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꺾었다"...극적 16강

U-20 여자 월드컵, 박수정 결승골...10년 만에 조별리그 통과

한국이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꺾는 이변을 쓰면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8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메트로 폴리타노 데 테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전반 22분에 터진 박수정의 결승골에 힘입어 강호 독일을 1-0으로 꺾었다.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로 패하고,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와 득점 없이 비긴 한국은 3위(1승 1무 1패·승점 4

·골·골 득실 0)로 조별리그를 마쳐 최종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4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2위와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올라 우승을 다툰다.

박윤정 감독 체제로 세계 무대에 도전한 우리나라는 16개국 체제로 진행된 2014 캐나다 대회(8강 진출)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조별리그 대전상 박윤정 감독의 16강 상,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와 득점 없이 비긴 한국은 3위(1승 1무 1패·승점 4

광주시청 김영건 '금빛 피날레'

'팀 코리아' 패럴림픽 탁구서 6번째 금메달...박진철 '銅'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6번째 금메달이 나왔다.

김영건(40·광주시청·세계랭킹 2위)은 7일(현지시간) 열린 탁구 남자 단식(스포츠등급 MS 4) 결승에서 세계 1위 완차이 차이웃(태국)을 세트 점수 3-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정길(38·광주시청)은 짜이웃과 준결승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2-3(8-11 11-5 4-11 11-9 9-11)으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로 잡았던 한국은 폐회식을 하루 앞두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04 아테네 패럴림픽부터 금메달을 수확한 김영건은 5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패럴림픽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공동 2위에 올랐다.

그는 아테네 대회 2관왕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한국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건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스포츠등급 MS4)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한편 한국 탁구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참가 종목 중 가장 많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등 1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U리그 왕중왕전 16강 안착

오늘 한일장신대와 8강 격돌

동강대 야구부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동강대는 지난 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흥익대를 상대로 7대4 승리를 거뒀다.

동강대는 에이스 김유현(2학년)이 선발로 나서 31이닝동안 15타자를 상대로 삼진 4개, 2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4번타자 포수 최석준(2학년)이 2타점 2루타를 터트리는 등 맹활약

했다. 동강대는 9일 오후 3시 지난해 왕중왕전 준우승 팀 한일장신대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툰다.

동강대는 U리그 조별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한편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부는 매년 꾸준한 성적으로 대학야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강대는 전국대학야구대회 2014-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김다이지